

## 수묵화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화집 《역사의 이름》  
펴낸 김호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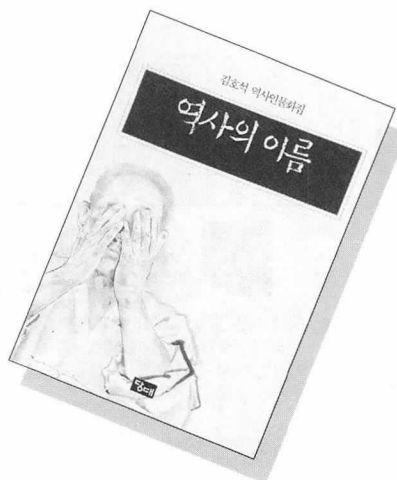
김호석씨의 역사 인물화는 또한 수묵화의 전통기법을 되살려 의미와 조응하는 형식이다. 내면적 깊이나 기질, 학문적 정조를 드러내는 전신사조(傳神寫照)나 화면 뒷쪽에 색을 칠해 입체감을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는 배채기법(背彩技法)은 김호석씨가 아니었으면 잊혀지고 말았을 전통이다. 종이를 만드는 일이나 염료를 고르는데도 우리 것, 우리 식을 고집하지만, 그림에 혼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은 더욱 돋보인다.

“사진만 보고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요. 그의 사상을 공부하고 일화를 채집해 스스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자신이 심정적으로 엄숙해지지 않는데, 보는 이가 어떻게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붉게 충혈된 눈의 원숭이를 그린 ‘관중의식’, 개를 소재로 한 ‘달도 부끄러워’, ‘관계’, ‘빈대잡는 선승’ 등의 비유화 역시 사람들에게 대한 은유며 풍자다.

“전시회를 끝내고는 당분간 쉬면서 머릿속을 비워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이든 그 바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 이현주 기자



전통적인 수묵화기법으로 조선 인물화의 맥을 잇고 있는 화가 김호석씨(39)가 화집 《역사의 이름》(당대)을 펴냈다. 이 화집의 주제는 선명하다. 다름아닌 ‘선비정신의 현대적 구현’. 다소 낱아 보이는 이 주제가 화집을 보는 동안 결코 전시대의 유물로만 여겨지지 않는 까닭은 거기에 깃들여 있는 화가 김호석씨의 진지함 때문이다.

“진정한 선비정신은 ‘글 아는 사람 노릇’입니다. 선비는 옳은 일로 죽는 길을 택하지, 결코 불의로 삶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화집에 실린 20개의 인물화 주인공은 한결같이 선비정신을 구현한 사람들이다. 임금 앞에 나아가 ‘수교를 하려거든 도끼로 내 목을 치라’고 했던 면암 최익현, 민족주의와 반봉건을 가르친 민중의 스승 전봉준, 촌부의 몸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산포수 홍범도, 삼팔선을 베고 누운 백범 김구, 침략자의 심장에 폭탄을 던졌던 안창호. 이들은 모두 안으로는 부패관료, 밖으로는 외세와 대결해야만 했던 근대를 지조와 절개로 살아냈다.

시인 김남주나 윤이상, 문익환, 성철스님 외에 현존인물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 박경리, 관운스님, 김근태를 넣은 것도 이들이 민족의 통일과 외세극복을 화두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현존 인물을 그릴 때는 그들이 언제 절개를 겪을지 모르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살아주십시오, 하고 짐을 지우는 겁니다.”



## 입으로 그려내는 세상의 빛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펴낸 한미순씨

한미순(41)씨는 구필(口筆)화가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장애자인 그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린다. 그에게 그림은 ‘생존’의 도구이자 의미이다. 얼마전 첫 개인전을 열어 세상의 주목을 끌었던 그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숨김없이 털어 놓은 자전예세이를 펴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종로서적)이 그것이다.

“눅눅하기만 한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싶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정리하다보니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미없이 그냥 일어난 일은 없더군요.”

결혼을 1주일 앞두고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3경추가 손상, 전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은 것이 서른살, 한미순씨가 장애인으로 살아온 것도 어느덧 12년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절망, 용변조차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 해결할 수 있는 치욕, 등돌린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비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허탈. 그간 겪었던 무수한 고통들을 이제는 먹빛으로 차분히 정화시킬 만한 시간이 된 것일까.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한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평화롭기까지하다.

영특한 데다 씩씩하고 성취욕 강한 한미순씨는 중학을 졸업하고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전자회사를 다니며 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억척 소녀였다. 이후로도 낮에는 회사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취미로 한 서예도 상당한 실력에 이를 정도로 눈코뜰 새 없이 살았고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 같았다. 고단하게만 여겨지는 삶이 그에게 준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부닥친 상황을 피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헤쳐나가는 강인한 의지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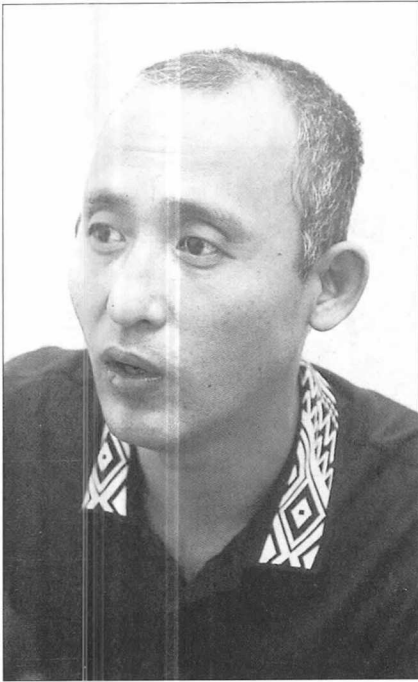
시작하면서부터 붓을 입에 물고 타이핑을 시작했던 일이며 사고 이듬해부터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내 몸이 성할 때 나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내 몸을 쓸 수 없으니 이웃의 고마움을 알겠더군요. 이웃이 곧 하나님입니다.”

동화 <또 하나의 하늘>로 곰두리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씨는 자신이 혼신을 다한 글과 그림이 절망 속에 잠긴 이웃,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라도 되기를 기도한다. 수시로 바뀌는 자원봉사자 때문에 겪는 정신적 풍랑이나 생계문제 등에서 좀 자유로와져서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한씨의 유일한 소망이다.

— 박남정 기자





## 한국만화의 현실과 나아갈 길

《만화로 여는 세상》  
펴낸 손상익씨

함께 의욕적인 활동을 펼칠 작정이다.  
우선 연구원 설립의 계기였던  
《한국만화통사》 작업에 매진하면서  
무크와 만화이론서를 펴낼 계획. 인터넷에  
만화열람방을 개설해 한국만화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교류도 도모할  
생각이다.

“한국만화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는 만화강대국 일본. 우리  
만화의 일본만화 배기기와 일본만화의  
무비판적인 수용이 한국만화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만화의  
체질개선을 위해 우수 만화작가 집단을  
양성하고, 만화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로는 문화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음반과 비디오에 대한 사전 심의가 폐지된  
마당에 만화만 계속 규제의 대상으로 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때 한국적인  
그림체와 어휘, 그리고 펜선을 사용하는  
작가가 나온다고 손상익씨는 덧붙였다.  
— 최성일 기자

만화평론가 손상익씨(41, 문화일보 생활부  
기자)가 두번째 평론집 《만화로 여는 세상》  
(고려미디어)을 펴냈다. 여러 신문·  
잡지에 기고한 만화 관련 칼럼을 모은 이  
책은 우리 만화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일본만화의  
영향과 세계 각국의 만화산업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우리 만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만화 발행량은 연간  
약 2천 5백만권으로 전체 도서발행량의  
17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월트 디즈니  
만화의 어마어마한 흥행수입은 만화의  
산업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렇지만  
만화는 산업 이전에 문화라고 손상익씨는  
강조한다.

“문화적인 고려 없이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할 때 만화는 상업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화의 단적인 예가  
지난달 치러진 제2회 서울국제만화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시회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손씨는 말한다.  
바람직한 만화축제로 프랑스의 앙굴렘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앙굴렘 국제만화제’를  
들었다.

또한, 일과성 행사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5·60년대 만화의 수집과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만화통사》 저술은 그 정리의 일환.  
3권까지 작업을 마쳤다.

손상익씨는 90년 스포츠서울 신춘문예로  
등단한 공식 만화평론가 제1호. 만화평론의  
개척자로 활발한 비평을 하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한국만화문화연구원을 열었다.  
손씨의 직함은 연구원장. 네명의 연구원과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서적박람회

▶ 대한출판문화협회 공식지정여행사 ◀

### 전시 개요

- 1) 전시회명 : 제48회 프랑크푸르트 국제서적박람회 (48th FRANKFURT BOOK FAIR)
- 2) 전시기간 : 1996년 10월 2일(수) - 10월 7일(월) (09:00-18:30, 단 7일은 09:00-14:00)
- 3) 전시주최 : 독일출판사적상연합회
- 4) 전시장소 : 프랑크푸르트 종합전시장(FRANKFURT MESSE GRANDE)
- 5) 전시품목 : 도서 전종류(소설,비소설,교과서,비디오 및 카세트 프로그램,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아동만화,삽화 등)
- 6) 참가규모 : 약 100여개국, 9,000여개사 참가 / 1996년 예상
- 7) 전시회특성 :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국제도서전시회

### 참관 일정

#### 1일경 도서전 개막식 참관 일정 7일간

- ▶ 169만원 - 9/30 출발 - 대한항공 이용 -
- ▶ 프랑크푸르트(5)-시내관광 및 하이델베르크 관광, 도서전4일간 참관-기내(1)

#### 2일경 도서전 개막식 참관 및 도서구입 6일간

- ▶ 158만원 - 10/3 출발 - 대한항공 이용 -
- ▶ 프랑크푸르트(5)-도서전4일간 참관 및 프랑크푸르트 시내관광-기내(1)

#### 3일경 도서전참관 및 로망틱가도/오스트리아/스위스 8일간

- ▶ 179만원-10/2출발 - 대한항공이용 -
- ▶ 프랑크푸르트(3)-도서전2일간 참관-로망틱가도 관광-빈헨(1)-쾰른(1)-대성당, 시청사, 관광-인스브루크(1)-황금지붕, 시청사-뤼첸(백조의성)-루체른(1)-필라투스 등정, 카펠교, 사자상 관광-취리히 시내관광-기내(1)

#### 4일경 도서전참관 및 프랑스/영국 서점 견학 8일간

- ▶ 175만원 - 10/1 출발 - 영국항공 이용 -
- ▶ 프랑크푸르트볼로나(3)-도서전3일간 참관-파리(1)-서점 방문 및 시내관광-런던(2) - 서점 방문 및 시내관광-기내(1)

#### 5일경 도서전참관 및 체코 / 오스트리아 8일간

- ▶ 183만원 - 10/1 출발 - 스위스항공 이용 -
- ▶ 프랑크푸르트(3)-도서전3일간참관-프라하(1)-바츨라프광장, 구시가, 프라하성, 대성당 등 관광 -비엔나(2)-국회의사당, 성슈테판성당, 음악가묘지, 시청사, 쾰른궁전 등 시내관광-기내(1)

#### 6일경 도서전참관 및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베를린 9일간

- ▶ 198만원-10/1출발 -KE이용-
- ▶ 프랑크푸르트(2)-도서전2일간참관-부다페스트(1)-마차교회, 왕궁, 어부의요새 등 관광-비엔나(2)-국회의사당, 성슈테판성당, 음악가묘지, 시청사, 쾰른궁전 등 시내관광-프라하(1)-바츨라프광장, 구시가, 프라하성, 대성당 등관광-베를린(1)-막스앵겔스 광장, 카이저빌헬름교회, 샤를로텐부르크궁전 등 관광-기내(1)

공동여행조건 : 1. 최소출발인원15명 2. 항공 및 전동버스이용 3. 1급호텔숙박비 / 2인1실기준 4. 각국공항세 5. 전문안내원동행 6. 여행자보험료(1억원) 6. 식사비 (※전시회입장료 및 전시회참관중 중식비 제외)  
\*프랑크푸르트호텔 : 49990N - 시내에서 12Km, 96년 9월에 개장하는 최신1급호텔 사용예정 (TEL: 06105-2040)

### 참가문의 / 신청

- 1) 참가문의 (주)씨앤씨여행개발  
서울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 4층  
TEL: 7766-002 FAX: 7760-844  
담당 : 대리 김정훈, 차장 김대용, 대표 안덕원
- 2) 신청마감 1996년 9월 10일(화) 18:00

THOMAS  
COOK

여·행·의·내·뭇·찾·기

SEA AND SEA  
TOUR GROUP